본부장님 모두말씀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 킥오프회의, '23.7.20)

【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 및 평가 】

1964년 「무역을 날」을 제정한 이후
올해는 60번째 '무역의 날'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1964년 최초로 수출 1억불을 달성(「무역의 날」 기원) 이후
60년간 우리나라 무역의 성장은
그야말로 '신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4년 수출 1.2억불, 세계 83위에 불과했던 우리 수출은
2022년 수출 6,836억불,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수출 대상국은 43개국에서 23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고
수출 주력 품목도 신발, 섬유 등에서
철강, 화학 등 중화학공업을 거쳐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으로 탈바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무역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이 74%('22년 기준)에 이르고,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전체 수출의 약 40%에 달합니다.

과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온 우리 수출은
이러한 특정 품목과 지역에 편중된 무역구조로 인해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3~4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대외여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

최근 반도체 업황 부진, 對中 무역적자 등은
우리 무역구조의 한계를 또 한 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5월까지 15개월간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신
대통령님의 세일즈외교 성과와 함께
민관이 총력 대응한 결과

지난 6월 무역수지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하반기 중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길었던 침체의 터널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유무역과 세계화 기조가 쇠퇴하면서
美-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
자국 중심의 글로벌 통상 경향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EU의 CBAM 등 저탄소·친환경 규제 강화,
美·日·中 등 주요국의 핵심원자재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정책 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근본적인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우리나라 무역의 변화 방향 】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무역은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진화하면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간의 수출액을 중시하는 양적인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외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무역구조를 질적으로 크게 고도화(upgrade)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 해야 합니다.

반도체·중국 등 특정 품목과 시장에 편중된
현재의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수출시장도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넓혀
수출포트폴리오에 다양성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新통상 전략의 수립도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무역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더 할 수 있도록
수출 지향형 중소·중견·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수출,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
새로운 무역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청년 무역인 등 새로운 수출역군을 양성해야 합니다.

세번째, 기존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 △투자 확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디지털·공급망 등 글로벌 3대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새로운 수출 방식과 주체 등 우리 무역의 외연확대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수출지원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되짚어 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당부말씀 】

오늘 출범하는 포럼을 통해
우리 무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미래 무역구조 전환을 위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포럼을 통해 제기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무역구조 대전환 포럼」의 첫걸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